

우리나라 病理學의 泰斗



李 濟 九 博 士  
(1911 - 1986)

李濟九박사는 1911년 1월 30일 함경남도 원산시 용동에서 李鼎鉉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李박사는 어린 시절을 원산에서 지냈으며, 1931년 3월에는 元山公立中學校를 졸업하고 그해에 京城帝國大學 豫科에 진학하였으며, 豫科를 수료한 李博士는 醫學部로 진학하여 1937년 4월에 동학부를 졸업하여 醫學士가 되었다.

재학시절에는 야구와 축구를 즐겨하였으며 특히 축구는 경성제대 의학부 대표선수였다.

졸업후 곧 동대학 의학부 病理學教室의 副手로 임명되었는데, 병리학교실 시절 일본인 고스기 교수로 부터는 남다른 총애를 받았다. 그 이유는 고스기 교수가 바둑을 무척 좋아하였는데 그 적수가 되는 이가 대학내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李교수만이 그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李교수를 자기방에 불러 바둑을 즐겼다.

그것이 인연이 된 것인지는 몰라도 3년간의 병리학교실에서의 연수를 마친후 일약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의 病理學教授로 임용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李濟九 교수는 약관 38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어 1940년 4월부터 1945년 10월 까지 동전문학교에서 병리학교수로 봉직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교수의 자리를 京城大學 醫學部로 옮겼으며 후일 정년퇴임 할때까지 25년간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의 주임교수로서 봉직하였다.

李교수의 연구업적중 「비만세포에 관한 연구」는 비만세포의 병리학적 인식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後學 지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임기간 박사학위 논문만도 무려 130여편을 지도하였으며, 1954년에는 大韓民國 學術院會員에 선출되었고, 1965년에는 大韓民國 學術院賞을 수상하였다.

또 동대학 재임기간중 6.25사변으로 대학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學長직을 맡아 대학의 보호육성에 남다른 숨씨를 발휘하였으며, 환도후에도 다시 학장직을 맡아 서울대의대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9년 11월에는 동대학을 정년퇴임하고 동대학의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醫學界의 學會活動에 있어서 1960년에는 大韓血液學會 會長에, 1962년에는 大韓病理學會 會長에, 1977년에는 大韓法醫學會 會長에, 그리고 1984년에는 大韓癌學會 會長에 추대되어 우리나라 醫學發展에 先導的 役割을 한 것은 커다란 업적이 아닐 수 없다.

1979년 3월부터는 慶熙大學校 醫科大學의 명예교수로 후진양성에 진력하다가 1986년 6월 18일 오후 3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遺族으로는 2男 3女와 4명의 손자를 남기고, 학문적으로는 이나라 의학 특히 병리학 발전에 씨앗이 된 분이다.

文 國 鎮

(高麗大醫大교수 · 大韓法醫學會 총무)